

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 결과

2022. 7.

< 조사개요 >

- ※ 「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」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 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임.

1

하계휴가 일수

300인 이상 「5일 이상」 52.9%, 300인 미만 「3일」 49.9%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「2022년 하계휴가*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'5일 이상'이라는 응답이 52.9%로 가장 높았고, 300인 미만은 '3일'이라는 응답이 49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* 본 조사에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일정 시기를 지정, 별도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 것임.

- 응답 기업의 91.3%가 '올해 하계휴가 실시'라고 답변(하계휴가 실시기업)
 - ※ 응답 기업의 8.7%는 '별도의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'이라고 답변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'5일 이상'이라는 응답이 5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300인 미만은 '3일'이라는 응답이 49.9%로 가장 높게 조사
 -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'3일'이라는 응답이 47.3%, '5일 이상' 28.9%, '4일' 12.7%, '2일 이하' 11.2% 순으로 집계

< 표 1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분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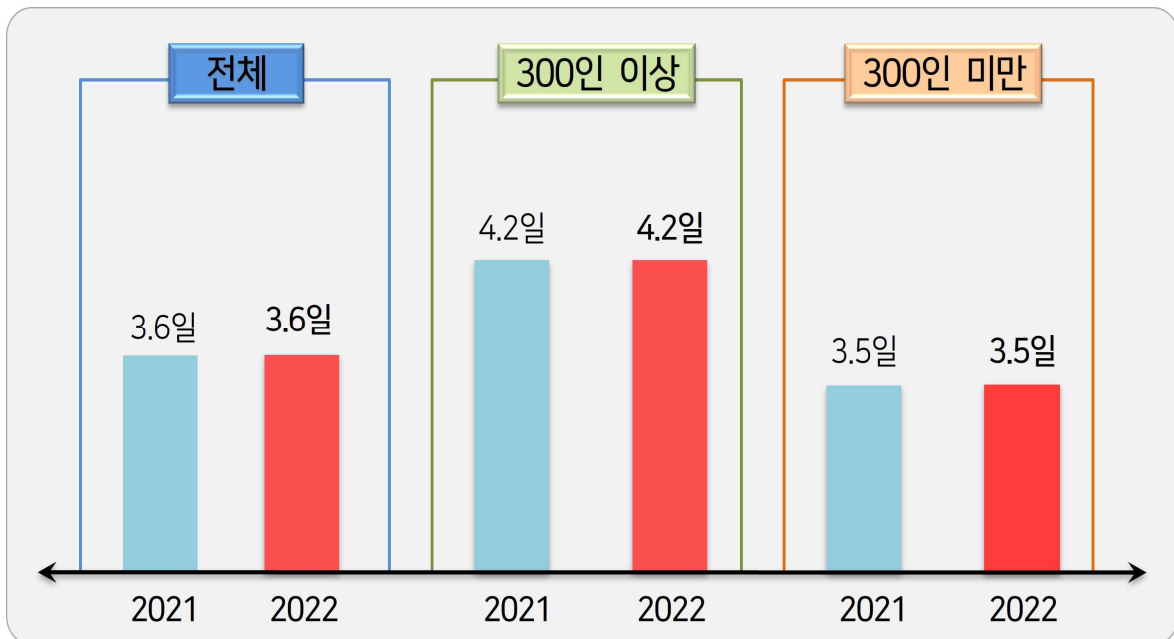
구 분		2일 이하	3일	4일	5일 이상
2021	전체	11.7%	48.5%	12.7%	27.0%
	300인 이상	3.4%	26.4%	17.2%	52.9%
	300인 미만	12.9%	51.5%	12.1%	23.6%
2022	전체	11.2%	47.3%	12.7%	28.9%
	300인 이상	2.3%	27.6%	17.2%	52.9%
	300인 미만	12.4%	49.9%	12.1%	25.7%

-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.6일로 지난해(3.6일)와 유사한 수준
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대다수는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5.8%로 집계

○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평균 4.2일로 전년(4.2일)과 동일하고, 300인 미만은 평균 3.5일로 집계되어 전년(3.5일)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.

< 그림 1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>



주 : 2021년 하계휴가 일수는 2022년에 조사한 2021년 실적치

2

하계휴가 실시 기간

제조업 69.3%, 「단기간(약 1주일) 집중적 실시」

비제조업 76.7%, 「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실시」
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, 업종별로 제조업은 '단기간(약 1주일)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'라는 응답이 69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비제조업은 '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동안 휴가 실시'라는 응답이 76.7%로 높게 집계
- 제조업은 '단기간(약 1주일)'이라는 응답이 69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장기간(1~2개월)' 24.1%, '2주에 걸쳐 교대' 6.6% 순으로 조사
- 반면, 비제조업은 '장기간(1~2개월)'이라는 응답이 76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단기간(약 1주일)' 17.6%, '2주에 걸쳐 교대' 5.7% 순으로 집계
-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'단기간(약 1주일)'이라는 응답이 58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장기간(1~2개월)'이라는 응답은 35.5%로 조사

< 표 2. 기업업종별 · 규모별 하계휴가 부여 방식 >

구 분	전체	업종별		기업 규모별	
		제조업	비제조업	300인 이상	300인 미만
단기간 (1주)	58.1%	69.3%	17.6%	46.0%	59.7%
2주 교대	6.4%	6.6%	5.7%	1.1%	7.1%
장기간(1~2개월)	35.5%	24.1%	76.7%	52.9%	33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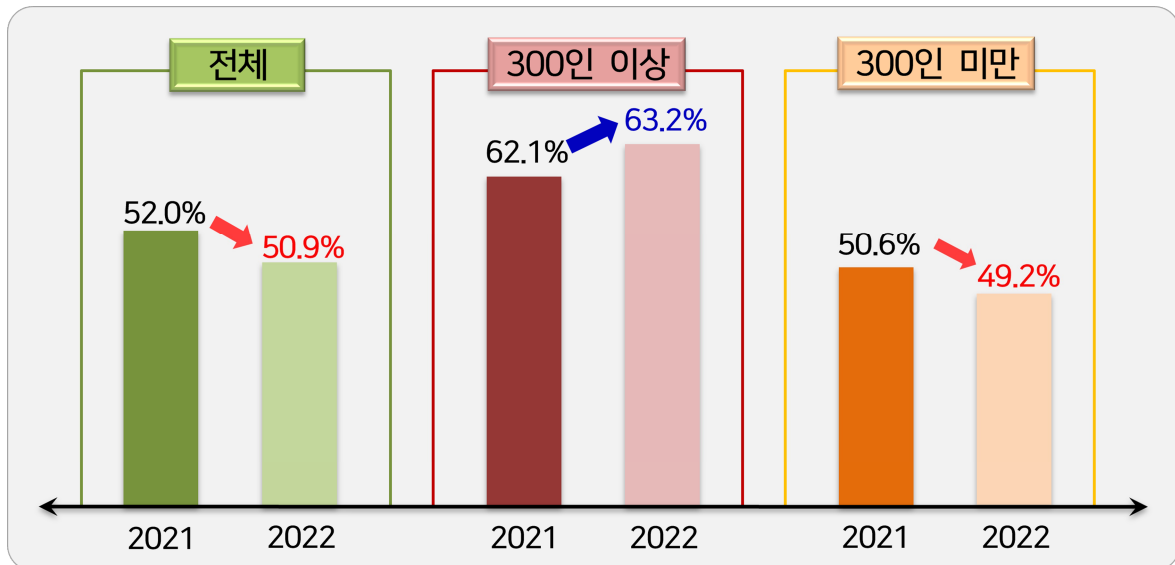
- 대다수 기업들은 '8월초'에 하계휴가를 집중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.
 - '단기간(약 1주일)' 또는 '2주에 걸쳐 교대'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(64.5%)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, '8월초'라는 응답이 78.1%로 집계
 - ※ '7월하순' 14.6%, '8월중순' 3.8% 등의 순으로 응답

3

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0.9%, 올해 하계휴가비 지급. 지급기업 비중 전년대비 1.1%p 감소

-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0.9%로 지난해(52.0%)에 비해 1.1%p 감소함.
- 올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63.2%로 전년(62.1%)에 비해 1.1%p 증가했고, 300인 미만 기업이 49.2%로 전년(50.6%)에 비해 1.4%p 감소
- 기업규모별로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(63.2%)이 300인 미만 기업(49.2%)보다 14.0%p 높게 나타남.

< 그림 2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>



주 : 2021년 하계휴가비 지급 여부는 2022년에 조사한 2021년 실적치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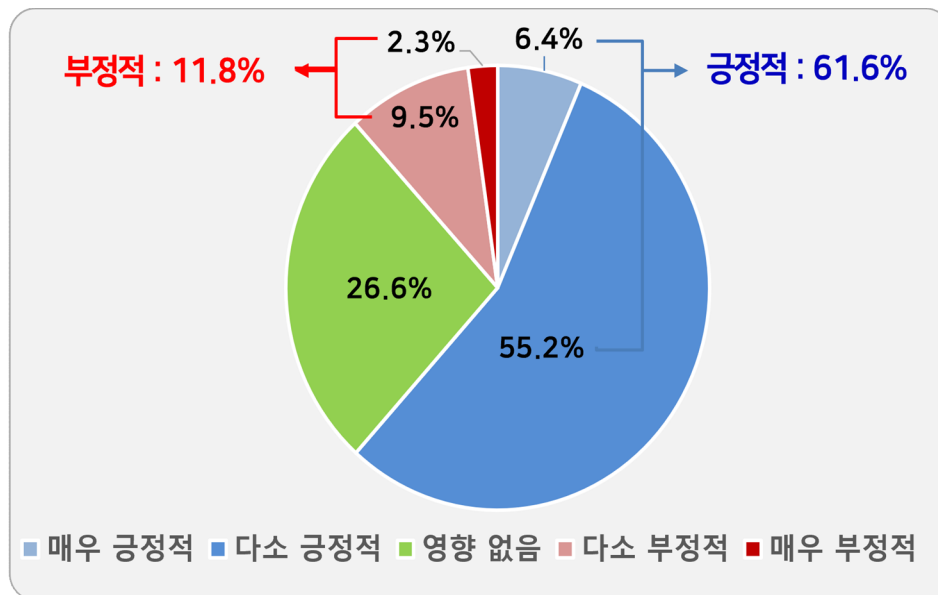
“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이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” 61.6%

□ 최근 정부가 발표한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*이 향후 경영여건에 ‘긍정적’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61.6%로 나타남.

* 규제혁파·기업활력 제고, 기업투자 확대·일자리 창출, 노동시장 개혁, 첨단 전략산업 육성, 사회안전망 강화 등

- 최근 정부가 발표한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이 기업의 향후 경영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‘매우 긍정적(6.4%), ‘다소 긍정적(55.2%) 등 ‘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’이란 응답이 61.6%로 집계
- ‘영향 없음’으로 응답한 기업은 26.6%, ‘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’한다는 기업은 11.8%(매우 부정적 2.3%+다소 부정적 9.5%)인 것으로 나타남.

< 그림 3. ‘새정부 경제정책방향’의 영향에 대한 평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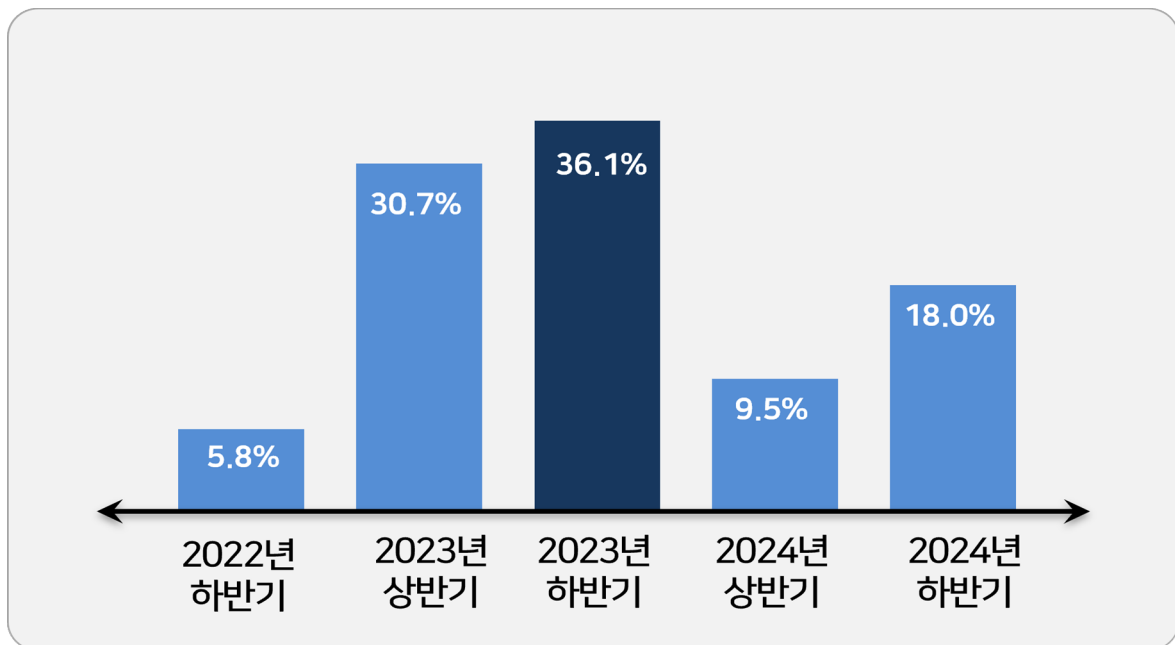
5 경제 복합위기 「2023년」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66.8%

- 고물가·고환율·고금리 등 경제 복합위기가 '2023년'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66.8%*로 가장 높게 나타남. '2022년 하반기'까지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은 5.8%에 불과

* '2023년 상반기' 30.7% + '2023년 하반기' 36.1%

-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·고환율·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'2023년 하반기'(36.1%)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'2023년 상반기'(30.7%), '2024년 하반기'(18.0%), '2024년 상반기'(9.5%), '2022년 하반기'(5.8%) 순으로 집계

< 그림 4. 경제 복합위기 지속 전망 시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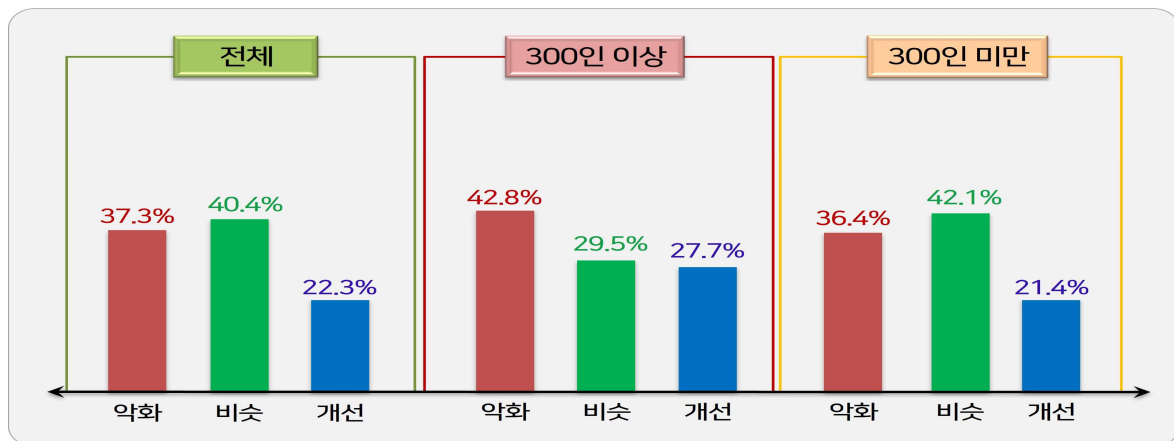


6

2022년 경영실적 전망, 작년보다 「개선」은 22.3%에 불과, 작년보다 「악화」는 37.3%로 높아

- 응답 기업의 40.4%는 2022년 연간 경영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으나, '작년보다 악화될 것'이란 응답도 37.3%로 높게 나타남.
- 2022년 연간 경영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작년과 '비슷한 수준으로 예상'한다는 응답이 40.4%로 가장 많았음.
 - 그러나 경영실적이 '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'한다는 응답은 37.3%로 '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'한다는 응답(22.3%)에 비해 15.0%p 높게 집계
 - 기업규모별로는, 경영실적이 '작년보다 악화될 것'이란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(42.8%)이 300 미만 기업(36.4%)보다 6.4%p 높았음. 다만 '작년보다 개선될 것'이란 응답 역시 300인 이상 기업(27.7%)이 300인 미만 기업(21.4%)보다 높게 나타남.

< 그림 5. 기업규모별 연간 경영실적 전망 >



< 표 4. 기업규모별 연간 경영실적 전망 >

구분	매우 악화	다소 악화	비슷한 수준	다소 개선	매우 개선
전체	7.7%	29.6%	40.4%	20.4%	1.9%
300인 이상	9.5%	33.3%	29.5%	24.8%	2.9%
300인 미만	7.4%	29.0%	42.1%	19.7%	1.7%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「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」는 기업의 하계 휴가 실시 여부, 실시 기간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별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경기 상황이나 경영실적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원사를 포함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중 설문에 응답한 806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기간 : 2022년 6월 27일 ~ 7월 5일 < 9일간 >

4. 조사방법

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.

5. 조사내용

- (1) 하계휴가 일수 및 실시 기간
- (2)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- (3) 「새정부 경제정책방향」의 영향에 대한 평가
- (4) 경제 위기 지속 전망 시점
- (5) 연간 경영실적 전망

6. 회수업체 수

구 분	전 체	기업 규모별		업종별	
		300인 이상	300인 미만	제조업	비제조업
회수업체 수	806개사 (100.0%)	105개사 (13.0%)	701개사 (87.0%)	599개사 (74.3%)	207개사 (25.7%)